



설악산 신흥사에 내걸린 현수막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우송스님)는 지난 15일 조계종 총무원의 지침에 따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17일 신흥사를 찾은 참배객들이 현수막을 살펴보고 있다. 신흥사=하정은 기자

## 민족문화 수호의지 전국 확산

불교종단협 성명 발표...중앙종회도 지지 입장 천명

불교 자주권 훼손하는 불교규제법령 제·개정 추진

불교계의 민족문화수호 의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26개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21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여권 규탄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관련기사 2면

종단협은 “(현 정부의) 반복적인 불교편향과 무시에 분노와 함께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면서 “정부는 불교문화유산의 보호·보존 의지가 없으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불교계에 하루 빨리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종회도 같은 날 의장 보선스님과 수석부의장 정묵스님을 비롯해 분과위원장단과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의 민족문화 수호활동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천명하면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종회는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천박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락되고 서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이 풀릴 때까지 정진 하겠다”는 총무원의 굳은 결의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돌릴 때까지 당당히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중앙종회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공주 태화산 전통 불교문화원에서 종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의원연수’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계종 신도들의 대표기구인 중앙신도회도 25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가불자들의 참여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회의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활동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실천 행동’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면서 전개되고 있는 민족문화수호 활동이 조계종 총무원은 물론 원로회의, 중앙종회, 교구본사 주지회의, 중앙신도회, 종단협까지 참여

하는 ‘범불교 운동’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22일 동지를 맞아 전국 사찰에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동지법회’를 일제히 봉행한다. 민족문화수호위원회는 전국 사찰에 미리 배포한 ‘동지법회 법문’에서 “국가가 관리 보존해야 할 국가문화재의 80%가 불교문화재”라면서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지는 부처님오신날과 백중에 이어 가장 많은 신도들이 사찰을 찾는 날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족문화수호위원회는 지속적인 활동방향을 전국사찰에 하달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영남·정우·원행스님)과 집행위원장(장적스님)을 선임한 민족문화수호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획홍보국과 연대사업국 등의 조직을 확대 구성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족문화수호위원회 위원장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스님과

신도들이) 종단을 믿고 종단의 지침에 따라 호흡을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종단 구성원들의) 분열이 없고,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문화수호 활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담스님은 “이번 시기에 불교계의 대정부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불교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어렵다”면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으니, (종도들은) 종단을 믿고 따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지법회 이후 불교계는 많은 신도들이 사찰을 찾는 신년 정초와 정월 방생기간에도 지속적인 민족문화수호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불교자주권을 훼손하는 각종 불교규제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해 민족문화수호 활동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불교계의 규탄 열기는 더욱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 이성수 기자

## ‘조계종 부산연합회’ 창립

내년 1월 11일 발기인대회 봉행

4월에는 ‘사부대중 결집대회’ 개최

최근 불교문화유산 훼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부산불교의 발전을 모색할 연합회가 창립된다.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를 비롯한 부산지역 주요 사찰과 신행단체들은 최근 연석회의를 갖고 내년 1월 11일 오후 4시 성도절을 맞아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조계종 부산연합회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기로 결정하고 21일 발표했다. 발기인대회 준비위원장인

안국선원장 수불스님과 사무총장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 준비위원인 대광명사 주지 목종스님, 황련사 주지 정산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스님 등은 지난 20일 안국선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연합회 창립을 선언했다. 스님들은 기자회견에서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선양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불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계종 부산연합회를 결성하기

로 원력을 세웠다”고 천명했다.

준비위원장 수불스님은 “부산에 있는 조계종의 여러 사찰들이 결집해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조계종도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부산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지역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내년 4월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부대중결집대회(가칭)’ 개최를 결의했으며 지역 불자들에게 대한 교육불사와 학술, 문화, 복지, 장학사업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최병문 부산지사장 ch4717@ibulgyo.com

조계사에 종교평화 기원

성탄트리 밝히다

총무원, 축하메시지 발표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 야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종교화합을 기원하는 성탄트리가 불을 밝히고 캐럴송이 울려 퍼졌다. 조계사에 성탄트리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심화되는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외된 이웃을 함께 보듬어 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 삼각형 모양의 전통한지등으로 만든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종교평화를 기원하며 불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조계사 주지 토전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승가원장애동시설 원생이 성탄트리를 점등한데 이어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과 조계사합창단이 부른 성탄축하캐럴송이 조계사 일대에 울려 퍼졌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류의 고통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을 맞아 불교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종교인의 지혜와 사랑으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훈훈하고 평화로운 성탄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간절히 기원했다.

이와함께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성탄트리를 밝히고 있는 모습.

신재호 기자

난 20일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따르면 개신교의 불교평화가 생각이 지만 서로 상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면대응을 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지만 괴부로 느끼는 상황은 생각이 어려서 어려운 일이 개신교의 일부의 일이라는 김 총무의 이야기에 대해 “개신교의 불교평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뿐 아니라 최근에는 더욱 더

세력화, 조직화되고 있다”면서 “종교간 교리가 달라 화합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상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면대응을 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지만 괴부로 느끼는 상황은 생각이 어려서 어려운 일이 개신교의 일부의 일이라는 김 총무의 이야기에 대해 “개신교의 불교평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뿐 아니라 최근에는 더욱 더

▶ 관련기사 4면 박인택 흥다영 기자

지식백서/ 원로의원 중하스님

7면

군장성으로 긴급한 불자 누가 있나

14면

## 향일암 신묘년 해맞이 철야기도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향일암에서  
힘차고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새 해를 보며  
당신의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남해제일관음기도도량 금오산 향일암  
www.hyangiram.org

- 일 시 \_ 2010년 12월 31일 오후 6시 ~ 2011년 1월 1일 오전 6시
- 장 소 \_ 향일암 대웅전, 관음원 • 축원 및 동참비 \_ 20,000원
- 문 의 \_ 061)644-4742(전남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산7번지)

향일암 관음성지 복원불사 ARS

060-800-0108 한 통화에 3,000원 보시금이 전달됩니다.

금강저비회 02-487-8500(12.31 출발 일정) 봉찬회 02-387-8578(12.31 출발 일정) 공친선형 02-2279-1191(1.1 출발 일정)

대한불교조계종 남해제일관음기도도량 금오산 향일암 주지 원문·신도회장 최 반야심 합장